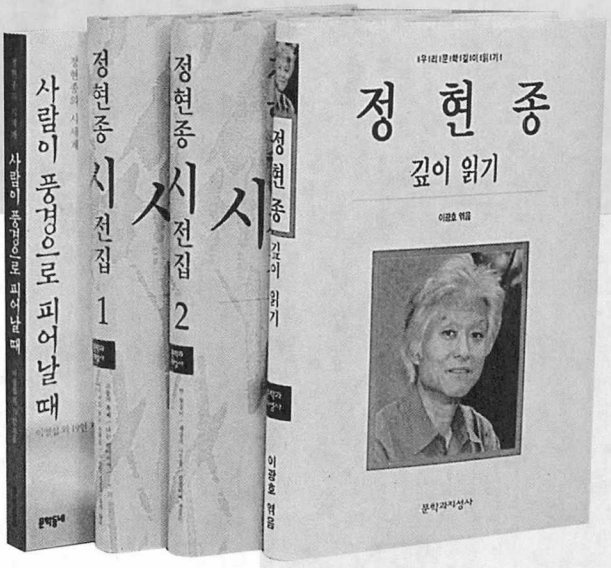
사물의 꿈 노래하는 언어의 연금술사

시력 35년 망라한 시전집 외 펴낸 정현종 시인

이순에 이른 정현종 시인의 시력(詩歷) 35년을 기념해 《정현종 시전집》과 《정현종 깊이 읽기》《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날 때》가 나왔다. 1965년 등단한 이래 자연의 생명력과 우주적 교감의 시세계를 펼쳐온 정시인은 여전히 진화를 거듭하는 열린 생명체다. '시는 읽는다기보다는 숨쉰다'는 명제로 요약되는 시론을 펼치면서 사물의 꿈을 풀무질해내고 있었다.



《정현종 시전집》
문학과지성사/A5신/350면 내외/10,000원 내외

《정현종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A5신/394면/13,000원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날 때》
문학동네/A5신/312면/10,000원

정현종 시인(61, 연세대 국문과 교수)을 찾아가는 날, 백양로에는 옅은 안개가 깔려 있었다. 창 밖으로 몇 개의 잎을 부적처럼 단 나무들이 내다보이는 연구실에 들어서자 은자(隱者) 같은 백발의 시인이 맞아줬다. 형형한 눈빛, 비음 섞인 목소리가 적막한 침묵에 잠긴 책들과 어울려 기묘한 화학반응을 일으키고 있었다. 대지의 생명체를 용광로에 집어넣고 시를 빚는 연금술사의 작업실이 그런 모습일까.

정시인에게 99년은 행복한 한해였다. 시인으로서의 복락을 한꺼번에 누렸기 때문이다. 이순에 이른 시인의 시력(詩歷) 35년을 기념해 두권의 《정현종 시전집》과 자전 에세이, 문학 연대기, 정현종 시에 대한 비평문, 문학 동료들의 인상기가 수록된 《정현종 깊이 읽기》(이상 문학과지성사)를 묶고, 후배 및 제자들이 그의 시세계를 기린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날 때》(문학동네)를 헌정받은 것이다.

"제게 회갑은 특별한 뜻이 없습니다. 우리 풍속의 하나일 뿐이지요. 다만 이를 계기로 내 작품과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맞은 거지요. 후배·제자들이 책을 헌정해준 것에 대해서는 감회가 남다릅니다.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는 것 같아 겸연쩍지만 즐거운 일입니다."

우주적 생명의 황홀감 노래해

정현종의 시에 이르는 길은 안개 자욱한 숲과 같다. 대지에 굳건히 뿌리내린 나무와 비의를 감춘 안개를 헤쳐야만 비로소 언어로 축조한 '시의 집'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집을 이루는 재료는 '숨·꿈·나무·새·탄력·에너지' 등 자연의 생명력과 그에 대한 황홀감의 이미지들이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탄력이 없는 것은 이미 죽은 것들이지요. 내가 시에서 자주 쓰는 공이라든지 둥근 것, 꿈 등은 생명의 다른 이름입니다. 시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일은 이런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시에서 해온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할 일들이지요."

1965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한 이래 그의 시도 진화를 거듭해왔다. 평론가들은 89년에 간행된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를 분수령으로 그의 시가 실존적 관심에서 문명 혹은 생명의 차원으로, 바람·죽음의 이미지에서 나무·꽃·새의 이미지로 변화했다고 분석한다.

"의식의 맨 끝은 항상/죽음이었네"(〈사물의 정다움〉)나 "저 밖의 바람은/심장에서 더욱 커져/살들이 매어달려 어둡게 하는/뼈와 뼈 사이로 불고"(〈바람 병〉)가 초기시의 주조음을 이룬다면, 90년대 이후 등장하는 "하늘에도 땅에도 우리들 가슴에도/들리지 나무들아 날이면 날마다/첫사랑 두근두근 팽창하는 기운을!"(〈세상의 나무들〉)이나 "천둥과 번개/세상의 새들/지상의 나무들/꽃과 풀잎/…/어휴 곤충들/저 지독한 동물들/너의 아름다운 숨결들"(〈내 즐거운 자극원들〉) 등은 생명의 외경감으로 충만해 있다.

"정신적인 태도랄지, 시 쓰는 방식 등이 조금씩 변해왔을 것입니다. 시는 사회적·정신적 상황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이지요. 모든 예술은 자기가 절실히 느낀 것을 표현합니다. 초기에 실존주의에 탐닉했다면, 90년대 들어서면서 자연이나 생명에 대한 감각이 더욱 예민해졌을 것입니다."

"시는 일종의 인공자연이다"

그는 비평이나 이론적 탐색에 비교적 거리를 둔 시인으로 꼽힌다. 시인으로서 남들의 시를 평가한다는 데 따른 불편함과 시를 쓰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가장 즐겁고 신명나는 표현방식이 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시에 대한 생각이 가다듬어지면서 구체화된 그의 시론은 '시는 읽는다기보다는 숨쉰다'는 명제로 요약된다.

"시에는 그 시인만의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바슐라르의 표현처럼 시의 이미지와 의미는 우리의 숨을 잘 쉬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숨을 쉬어야 합니다. 숨은 나와 타자를 연결하는 하나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모든 생명체와 교감합니다. 인도 산스크리트어에서 말하는 '프라나'(氣)가 숨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오지요."

그가 틈나는 대로 학교 숲 속을 거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때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대기의 에너지가 자신에게 들어오는 것을 느낀다. 그는 자연에서 숨을 쉬고 시로 숨쉰다. 시는 우리의 마음에 숨을 불어넣어 정신이 뛰놀게 함으로써 우리를 무거움에서 해방시킨다. 우리가 시에서 그런 해방이나 열림의 순간을 체험하기 때문에 시는 자연의 숨결이라는 시론이 나온다.

"시는 일종의 '인공자연'입니다. 시인의 감각체험, 느낌의 질, 이미지 때문에 시어는 거의 자연에 가까운 말입니다. 하지만 문명과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우리는 자연의 숨결을 잃어버렸습니다. 문명에 병든 심신을 치유하고 정신의 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결국 자연과 만나고 시와 만나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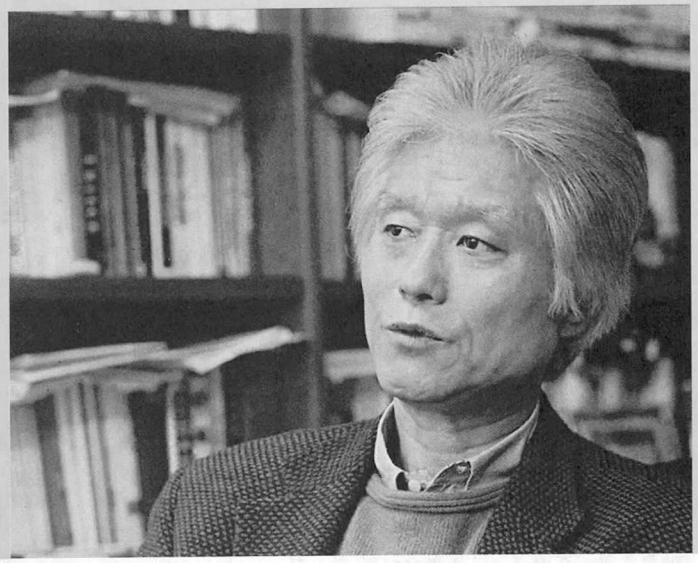
상투성을 거부하는 독특한 시문법의 창조자

정현종의 시를 다른 시와 구별짓는 것은 문체의 힘에서도 나온다. "확신과 열애의 손의 운행을"과 같은 서구적 조사법, 중첩되는 이미지의 전개, 동사의 명사화, 한자어의 빈번한 사용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개성적인 문체로 독특한 시문법을 창조해왔다. 그는 이를 '상투성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라고 표현한다.

"문체는 바로 그 사람이란 말이 있지요. 문체는 사람 생긴 것과 같습니다. 그의 재능, 성질, 체질이 문체를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나는 시에서 어조를 중시해요. 내가 시를 판단할 때 기준으로 내세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어조입니다. 어조야말로 말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그가 읽고 체험한 것의 총화다. 정현종의 독서체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가들은 릴케·네루다·로르카·바슐라르 등이다. 이들은 남달리 독자적으로 사고했던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그의 시정신과 만난다. 자유롭고 탄력있는 정신만이 해낼 수 있는 각성과 해방에 이르렀던 것이다.

"나는 우울할 때 릴케·네루다·로르카의 시를 읽습니다. 릴케의 시는 베일에 가려져 있으면서 때로 이를 살짝 들춰내는 신비한 세계입니다. 네루다는 대지의 시인으로서 파도처럼 뛰노는 듯한 생명력으로 충만합니다. 네루다가 원심력의 시인이라면 로르카는 구심력의 시인이지요. 정서와 감정이 응축되면서 폭발적인 이미지를 발산합니다. 이들의 시로부터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시력 35년 동안 우주적 생명력을 노래해온 정현종 시인은 여전히 진화를 거듭하는 현재진행형의 작가다.

굳이 만년필로 시를 쓰는 이유

1982년부터 현재까지 연세대 국문과 교수로서 후학을 길러온 정교수는 문학은 되도록 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자의 개성에 맞게 자기 재능이 발휘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창작 교실〉에서 "내 소리도 가끔은 쓸 만하지만/그보다 더 좋은 건/피는 꽃이든 죽는 사람이든/살아 시퍼런 소리를 듣는 거야"라고 후학들에게 충고한다.

"강의 시간에 늘 하는 얘기는 이 세상과 처음으로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돌지 말고 열심히 살라고 합니다. 뭔가에 자기를 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문학이든 사랑이든 혁명이든 자기를 걸지 않으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지요."

정현종 시인은 후배 시인들의 작품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한다. 다만 뭔가 피상적이라는 느낌, 병들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집필도구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짐작해볼 따름이다. 자발적인 컴맹인 그는 아직도 모든 글을 만년필로 쓴다. 굳이 컴퓨터를 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요즘 세대들의 작품을 읽어보면 마치 기계가 글을 쓰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공연히 말이 많고 의미없는 것을 길게 늘어놓아요. 깊이 생각하고 느끼기 전에 곧바로 써버린다고 할까요. 종이에 만년필로 쓰게 되면 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지요."

"시는 나의 천직"이라고 '확신의 근육질'로 말하는 정현종 시인은 여전히 우주와 교감하는 열린 생명체다. 인생살이가 괴롭고 역사의 진행에 흠이 있으며 결핍감을 느낀다면, 그래서 꿈을 꾸기 시작한다면, 문학작품은 앞으로도 계속 씌어질 것이라고 믿는 그는 대지와 바람을 풀무질해 '한 꽃송이(시)'를 계속 피워낼 것이다. 시인과 헤어지고 밖에 나설 때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있었다.

— 박천홍 기자